

## 01

### 경남 산청서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개최 1,600여명 참석...우수 축산물 시식·체험 이벤트



경남 산청군에서 ‘제10회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개최되며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함께하는 경남 축산’을 향한 결의를 모았다.

경남도와 산청군이 주최하고 경남축산단체협의회와 경남농협이 주관한 ‘제10회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지난 10월 13일 산청체육센터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함께하는 경남 축산’이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경남 축산사랑한마음대회에는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김현철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강문규 경남농협 부분부장과 지역농축협 조합장, 한우·낙농·한돈·산란계·양봉·오리 6개 축종별 단체 대표와 축산가족 등 1,600여명이 참석했다.

축산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우수 축산물 시식회,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스마트 축산기자재 홍보 및 전시관 운영, 어울림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사료가격 인상과 축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축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남도에서는 축산농가 스마트화 지원과 축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도 “사료값 급등, 축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축산농가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축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농어민신문 www.agrinet.co.kr



# 02

## 닭·오리·계란 이력제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축평원 광주전남지원, 스마트한 축산물 구입방법도 설명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승중원)은 지난 10월 18일과 26일 각각 광주소비자연맹(회장 오미록), 전남목포소비자연맹(회장 박난숙) 회원들을 대상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비자 교육에선 이력제 시행 목적, 닭·오리·계란 이력제 단계별 신고 정보, 이력제 앱을 통한 이력 정보 확인 방법, 원패스 등을 활용한 자녀 급식정보

확인 방법,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 앱을 활용한 스마트한 축산물 구입 방법 등을 교육했다.

승중원 지원장은 소비자에게 “가금이력제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돼지 이력제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지속적으로 소비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www.afnews.co.kr

# 03

## 또 AI 발생철...경남도, 6개 시·군 중심 중점 방역 11월부터 오리농가 사육 제한, 산란계 밀집지역 차량 통제



철새도래지 시 방역 (사진제공=연합뉴스)

경남도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철을 맞아 6개 시·군을 AI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선정했다고 지난 10월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과거 AI 발생 전력, 철새도래지역 부 등을 고려해 창원시·진주시·김해시·창녕군·하동군·거창군에 있는 35개 지역(리 단위)을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정했다.

경남도는 해당지구에 있는 오리농가 7곳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육 제한을 명령했다.

출처: 연합뉴스 www.yna.co.kr

04

“오리협회 과징금 부과’ 무리” 주장  
 SI 발생-겨울철 사육제한-수급조절 불가피 상황 무시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치한 ‘오리 생산량 제한행위  
 제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오리계열사·오리협회가  
 가격·생산량 담합 혐의로 부과  
 받은 과징금에 이어 오리협회는  
 올해 또 다시 ‘별건’으로 과징금  
 철회를 맞았다. 이를 두고 오리  
 산업 관계자들은 “오리 생산량  
 은 SI 발생, 겨울철 사육제한으  
 로 수급 조절이 불가피하다”며 “오리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편향된 시각”이라는 입장  
 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22일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  
 량을 결정했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오리 신선육 공  
 급 증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사업자(오리계열사)들의 종오리 신청량은 최대한 삭감하고, 종오리 수요  
 가 부족한 경우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  
 이 차단됨에 따라 오리 신선육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부과한 오리협회 과징금은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해와 같은 사안을 별건으로 처리해 올해도 과징금을 부과한데다, 오리 산업은 SI와 겨울철 사육제한  
 으로 수급 조절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수급조절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합의한 내용이라는 오리협회  
 의 소명은 과징금 부과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협회는 9개 오리계열사와 오리농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일 뿐 강  
 제 집행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며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어떠한 항고도 일절하지 않겠다. 다만 협회가 영리를 취하기 위해 오리 가격과 수량을 담합  
 했고,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았다는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수급 조절을 축산계열화법에 적용시키는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오리 산업뿐만 아니라 가금 산업은 공정위  
 의 과태료 폭탄에 상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www.chukkyung.co.kr



# 05

## 고병원성 AI 차단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유지 진주시, 가금농가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

경남 진주시는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시는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특히 9월 말부터 10월 경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 시가 발생하면서 올해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시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진주시는 겨울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전파방지, 농장 유입 차단, 농장간 수평전파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먼저 철새 유입 동향, 차단 방역요령, 발생 상황을 문자 서비스(SMS),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실시간 전파하고,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시와 진주축협 소독차량 5대를 동원해 매일 소하천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소독에 나선다. 또한 발생빈도가 높은 오리는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일정기간 사육을 제한하고,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농장과 차량소독, 출입 통제 상황 등을 직접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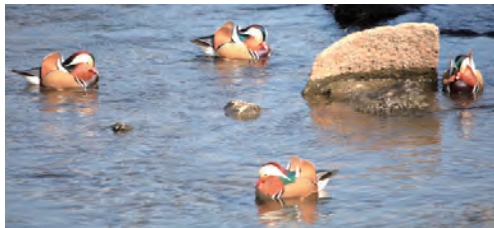
한편 시는 올 겨울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9월 '특별방역대책기간 대비 가축질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결의를 다졌으며, 축사 CCTV, 소독시설 및 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등 가금농가 맞춤형 방역시설에 1억원을 지원했다.

출처\_뉴스시스 newsis.com

### 포토뉴스

# 06

## [구기동의 인문산책] 중랑천의 원앙오리



중랑천에서 만난 원앙오리. (사진제공=구기동 교수)

10월 넷째 주부터 중랑천 살곶이다리 부근에 원앙오리가 날아와서 적지만 월동을 시작했다. 원앙오리는 개체가 작기 때문에 외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숨기쉬운 다리기둥 밑이나 풀숲에 숨어서 활동한다.

출처\_공감신문 www.gokorea.kr